



네티나무 한글학교

Since 2004

2016. 7 글모음집

- 교내 한국어 말하기 발표회
- 교외 수상
- 우리들의 이야기

Reader is a Leader!

글로벌 리더의 행복한 한글 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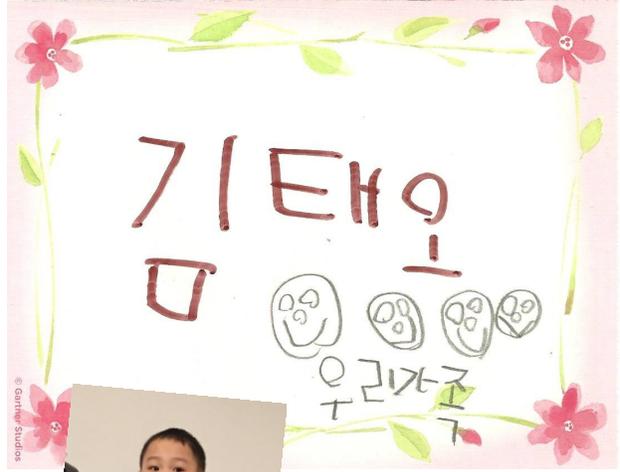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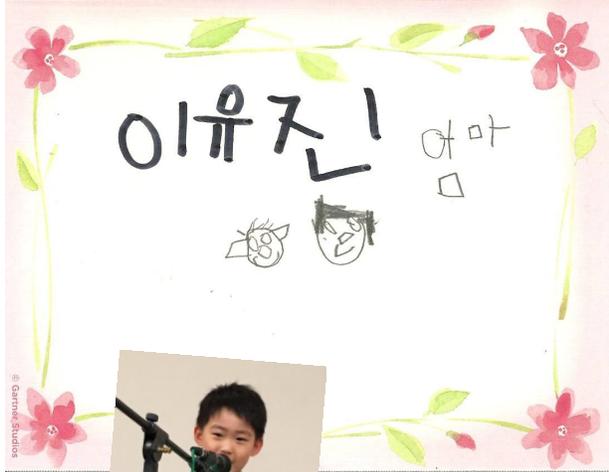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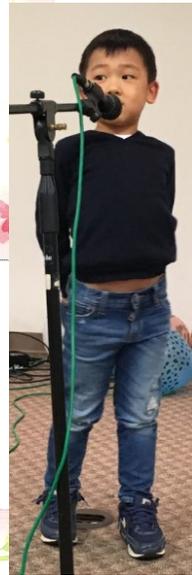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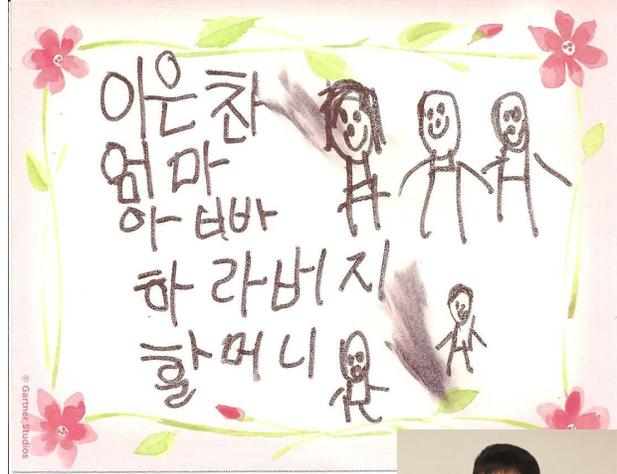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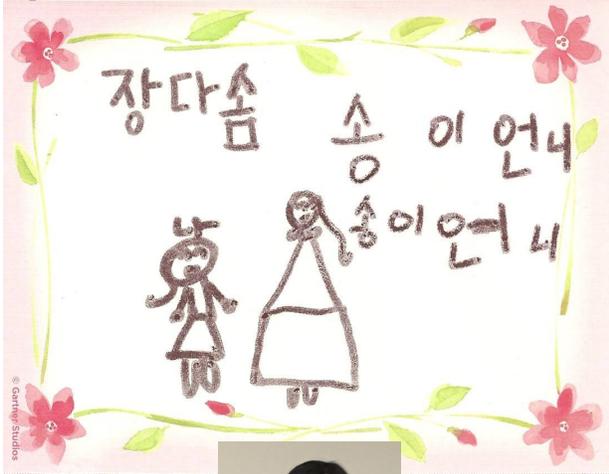
2	감사합니다/ 노옥남
3	김태오 박재희 윤세현 이유진
4	이은찬 이예찬 조 윤 장다솜 장다슬
5-7	이예지 이주은 윤가성
8-12	김유진 조은 주재균 채규인 조아론
13-17	도유현 정유진 채정인 최준호 정인아
18-20	도형탁 이성은 정유나
21-22	노지영 장송이
23	교내 한국어 말하기 발표회 사진
24-25	대외 수상 I, II 사진
26	수업 사진
27	EBS [책 읽기-생각을 열다] 시청 소감/ 노지영 장송이
28-29	제2회 정주영 에세이 공모전 장려상 수상작/ 장송이
30-32	제1회 정주영 에세이 공모전 대상 수상작/ 노지영
33	한국문예원언어콘텐츠연구원의 도서 기증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봅니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책을 통해 바른 가치관을 배우고 더 나아가
훌륭한 위인들의 발자취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선생님들, 잘 따라와 준 아이들,
숙제 지도와 운전해 주신 부모님들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세번째 글모음집을 준비하며
칠월 여름, 노옥남





1월 21일 목요일											
어제 잠든 시각		오늘 일어난 시각		시		분		시		분	



나	는	눈	사	람	을	만	들
었	어	요	!	너	무	재	밋
었	어	요	.	겨	울	이	정
말	중	아	요	!	와	!	!

내 꿈은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거예요.
 나는 바이올린에서 Becker Gavotte 노래를
 배워요. 바이올린은 너무 좋아요. 다
 른 곡은 수영 선수 되고 싶어요. 나는 수영
 좋아해요. 5월 19일 이예지



1월 27일 수요일											
어제 잠든 시각		오늘 일어난 시각		시		분		시		분	



나	는	여	름	이	종	다!
수	영	도	할	수	있	고
모	래	성	도	만	들	수
있	고	여	름	이	재	밋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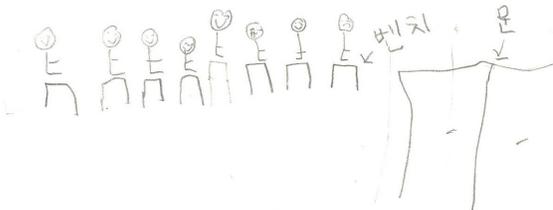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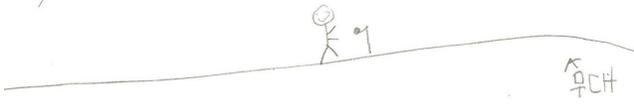
1월 27일 수요일											
어제 잠든 시각		오늘 일어난 시각		시		분		시		분	



나	는	오늘	테	니스	를
치	러	갔	어	요.	진
짜	재	미	있	었	어
요.					

1월 18일 월요일	
어제 잠든 시각 11시 4분	오늘 일어난 시각 8시 15분

1월 22일 금요일	
어제 잠든 시각 9시 30분	오늘 일어난 시각 7시 25분



오늘	교	회에	가서
하나	님	은	위
분이	라고	배	우
나	다	지	다

나는	오늘	학교	에
뜻	불	을	했다
공	을	가	로
담	이	이	다

생	각	하	고
친	구	들	도
이	요	머	리

내 친구 장성이가 풋볼을 좋아해요. 장성이가 스포거티 먹어요. 장성이가 11월에 태어났어요. 두나, 엄마, 아빠 있어요.
5월 19일
윤가성



1월 17일 일요일		☀️ ☁️ ☔️ ☁️ ☀️	
어제 잠든 시각	시	분	오늘 일어난 시각
	시	분	시



오늘은	재미있는	날	
이	있	어요.	나
하	고		내
연	4	가	컴
			퓨터
			게
			임
삼	십	분	
			놀
			았
			어요.

해님달님



내 친구 Inessa 생일엔 2원 2일이어요
 나하고 Inessa가 쉬는 시간에 관디에서
 gymnastic bridge (허리자기) 잘 하면서 놀아요.
 Inessa가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내 친구
 Inessa가 진짜로 착해요. 내 친구
 Inessa가 선생님한테 조금 흉내내기도 아껴요
 내 친구 Inessa가 착해요. 내 친구 Inessa
 가 체조를 좋아하는거 같아요.

5월 19일
 이주은

1월 22일 금요일		☀️ ☁️ ☔️ ☁️ ☀️	
어제 잠든 시각	시	분	오늘 일어난 시각
	시	분	시



오늘은	피자	를	먹
어요.	작은	오	빠
			같
			하
			예요.
			나는
			꽤
			많
			먹
			었어요.

요.	연	4	하
			고
			동
			생
			은
			나
			처
			럼
			.
			꽤
			오
			조
			나
			.
			피
			자
			를
			먹
			었어요.
			재
			미
			있
			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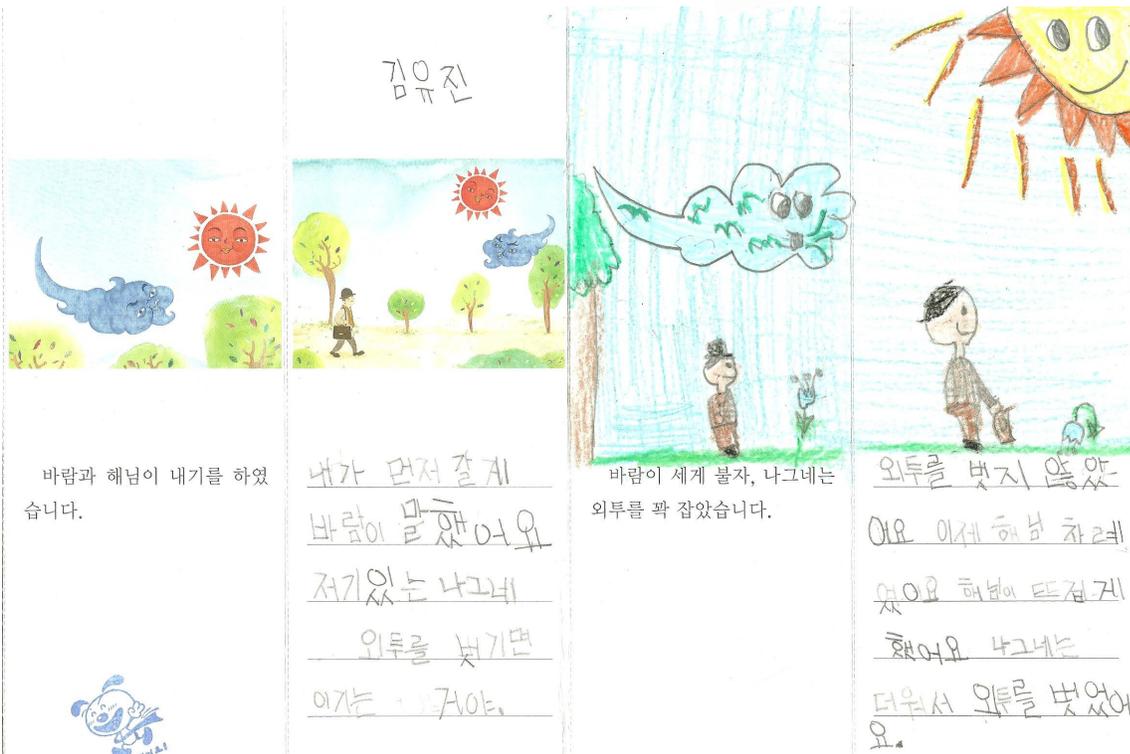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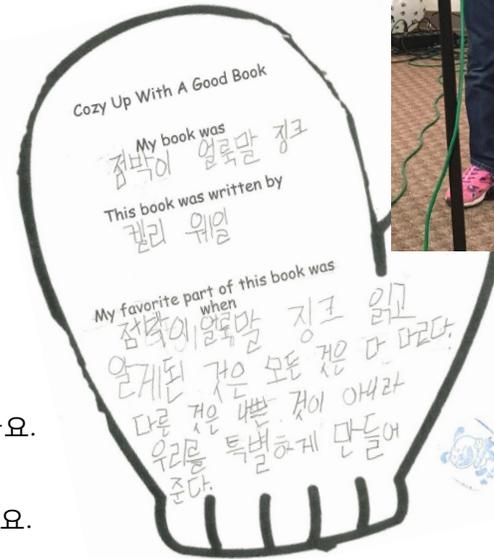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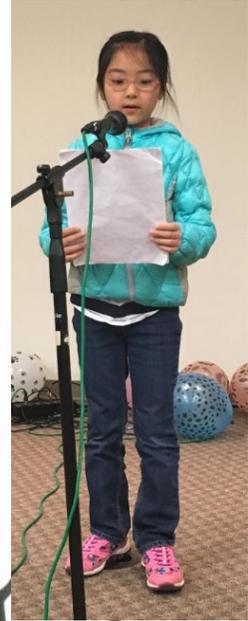


내가 좋아하는 것들

김유진

나는 순두부가 좋아요.
 왜냐하면 두부와 국물이 맛 있어요.
 나는 아이스크림도 좋아해요.
 왜냐하면 달고 시원하니까요.
 나는 텔레비전도 좋아해요.
 왜냐하면 쿵푸 팬더가 웃겨서 재미있어요.
 나는 책 읽기도 좋아해요.
 왜냐하면 주디 브룸이란 책이 재미있어요.

나는 돌고래도 좋아해요. 왜냐하면 타고 싶어요.
 나는 강아지와 고양이가 귀여워서 좋아해요.
 나는 친구랑 학교도 좋아해요.
 왜냐하면 같이 놀고 같이 공부하는 게 재미있어요.
 나는 엄마랑 아빠도 좋아해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요.
 나는 내 동생 태오도 좋아해요.
 왜냐하면 혼자 놀 땐 심심한데 같이 놀면 재미있어요.



우리 강아지 조은 2016.5.6.
 저는 강아지를 좋아해요. 우리 가족이 강아지
 있어요. 우리 강아지 허연 색이에요, 우리 강아지
 가 너무 작아요. 우리 강아지 있어요. 우리 강아지
 똥을 많이 싸요, 우리 강아지 사발을 무서워해요,
 우리 강아지 밥을 싫어해요, 우리 강아지 밤
 을 싫어해요. 우리 강아지 너무 좋아



Name: 조은 /8 Date: 2016.5.7
 한글로 쓰세요.

Book Report

Title: 보물섬
 Author: 스티븐슨
 Characters: 빌선장, 짐, 트렐로니 씨, 심버

Summary: (5학년 이상) 옛날에 짐이 살았어요. 짐이 여관에 살았어요. 짐이 배 타서 실버 섬 샀어요. 어느 날 누가 섬이 팔았어요. 보물섬에 보물 찾아왔어요. 보물 찾아 말했는데, 보물이 없었어요. 다음에 밑에 서서 보물을 찾았어요. 다음에 어근근 사람 들을 도와줬어요.

In this book I learned: 사람들이 착해 보여두 안착할 수있다.

I love to read

Artwork Copyright © Original Country Clipart by Lisa www.countryclipart.com

나의 사촌들이랑 놀기

채규인

겨울방학 때, 재화 누나와 서혁이가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왔더니 재화 누나와 서혁이와 이모가 있었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재화 누나는 4학년이고 서혁이는 2학년이에요. 한국에서 놀러왔어요. 우리는 여행을 같이 갔어요.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가서 재미있는 놀이기구도 타고 시월드에선 귀여운 동물 쇼도 봤어요. 썰매 타러 독일 마을에도 갔어요. 재화 누나하고 서혁이가 정말 좋아했어요.

방학이 끝나고, 재화 누나와 서혁이는 한국에 돌아갔어요. 재화 누나랑 서혁이가 같이 있어서 정말 재미있었어요. 우리도 한국에 놀러 가고 싶어요.

내가 스포츠 좋아하는 이유는
 저는 축구, 풋볼 좋아해요.
 내가 축구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축구
 좋아해서 축구 많이 놀아요. 축구 연습도
 해요. 진짜 재미있어요. 학교에서도
 놀아요. 축구가 재미있어도 진짜 어려워요.
 저는 풋볼도 좋아해요. 학교에서도
 놀아요. 재미있어요. 풋볼에서는 공을
 던지는 것 정말 재미있어요. 저는 잡으려
 손이 아파요. 저는 풋볼 하러 축구 좋아해요

Cozy Up With A Good Book
 My book was
 This book was written by
 찰스 푸자
 My favorite part of this book was
 when
 그 책에서는 개에게서 던져
 나온 버금과 견대 잡거
 마비, 스킨, 사사
 축구 할 거



바람과 해님이 내기를 하였 습니다.

바람이 세계 불자, 나그네는 외투를 꼭 잡았습니다.

바람과 해
 님은 누가 나그
 네의 외투를 벗기
 는 지 내기를
 하였 습니다



해님이 해님을
 비추자 나그네는
 단단히 잡고 있던
 외투를 벗었습니다



펭귄은 뚱뚱해요, 왜냐하면
 안뚱뚱하면 추워서 죽을거예요.
 펭귄 털이 많아 서안주워요.
 펭귄은 남극대륙에서 사라고,
 펭귄이 많아안남았어요.
 펭귄은 물고기 하고 오징어를 먹이물먹어,
 펭귄은 물고 하고 땅에 배바라고요.
 펭귄은 동쪽에서 사라고,
 새들은 펭귄을 먹어요.
 근데 펭귄이 물에 들어가면
 상어도 있어 온 그라서 상어가
 펭귄을 먹을수 있어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

주재균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주재균입니다. 내 꿈은 하늘
 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하늘을 날면서
 새들을 많이 만나고 다른 나라에도 가
 고 싶어요. 한국에 가서 내 할아버지도
 만나고 싶어요. 새들도 만나고 물고기
 들도 보고 싶어요.

그리고 아프리카를 지나갈 때는 아프리
 카 사람들을 도와 줄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밥하고 물을 줄 거예요. 그
 러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좋아할 거예요.

어떻게 날 수 있냐하면 날개를 가져서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태어날 때
 날개를 못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날
 개를 갖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게 내 꿈
 이 됐어요.

Name: Will (주재균) Date: 5/12/16

Book Report

Title: 신바트의 모험

Author: 이관 재래동화

Characters: 신바트

Summary: 신바트라는 정이
있어요. 신바트는 달과 자신의 신체를
노래로 치어 불렀어요. 그때 부자집 주인이
불렀어요. 부자집 주인도 이걸이 신바트
였어요. 신바트노이이 어떤게 해서
부자가 되었는지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신바트는 상아를 파아서 돈을 가지고
아프리카 짐승이도 포획하지 않았어요.
In this book I learned: 노를 썰고 신바트는 회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I love 살았답니다.

내가 읽은 책

조아론

안녕하세요, 저는 책을 읽는걸 좋아해요. 요즘에, 제가 읽고 싶은 책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저의 친한 친구는 저에게, 정말 재미가 있는 책을 소개해 줬어요. 그 책에 제목은 미스터리어스 베네딕트 소사이어티 (The Mysterious Benedict Society)입니다. 이 책을 읽을때, 저도 같이 모험하는것 같아요. 그런 이유는 그들을 쓴 사람이 책을 읽는 사람에게 힌트를 주어서, 함께 문제를 풀수가 있어요.

이 책은 외로운 아이들이 이상한 시험을 하고, 네 명이 모여서 자기가 얼마나 특별한 아이들인지 알게 되요. 그 아이들이 퍼즐을 잘 풀수 있어요. 아이들이 베네딕트 아저씨를 만나고 메시지를 받아요. 그 아이들이 mind-control 하는 학교로가요, 그 아이들이 principle을 막아야 돼요. 그런 이유가 principle이 대왕 되고 싶어서, mind-control로 사람들을 자기를 대왕으로 생각하게 만들려고 해요. 아이들이 그 학교 안에 스파이가 돼요. 마지막에, 제일 작은 아이가 principle을 꼬시다가, principle이 막았어요. 그 아이들이 다시 돌아가고 아이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을 찾아요.

저는 이 책을 읽는 동안, 제가 외로운 아이였으면, 어떻게 살수있는지 생각했어요. 그 책에 아이들이 엄마 아니면 아빠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가족이 없고 도망갔던 아이들이였습니다. 제가 아끼는 친구들과 가족이 없었으면 엄청 외롭고, 사랑이 없는 삶이었을것 같아요.



파티쉐 (Pastry Chef)

조아론



이번 주에 빵을 얼마나 자주 드셨어요? 하루 아니면 이틀 정도 아니면 더 많이 드셨나요? 저는 빵을 좋아해요, 그런데 케이크, 쿠키 만드는 것을 더 좋아해요. 저는 아마 어른이 되면 파티쉐가 될 거 같아요. 파티쉐는 한국 말로 <제과 제빵사>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디저트를 좋아했어요. 특히 케이크를 만들 때가 엄청 재미 있어요. 빵을 구울 때면 빵이 부풀어 오르는 게 신기해요. 제가 일곱 살이었을 때 저는 파티쉐가 되고 싶었어요. 할머니댁에 갔을 때 할머니께서 빵과 만두를 만들어주셨는데 그 때마다 도와드렸어요.

또 엄마가 마들렌, 케이크, 도넛 그리고 빵을 만드실 때 많이 도와드렸어요. 나중엔 저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요리 프로그램을 가장 좋아하게 되었어요. 유튜브에서 음식 만드는 동영상을 보고 요리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몇 주 후에 엄마한테 초콜렛 머핀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어요. 제가 머핀을 만드는 동안 엄마가 제 옆에 계시면서 도와주셨어요. 저는 아주 맛있고 예쁜 초콜렛 머핀을 완성했고 가족들을 위해 더 많이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머핀을 드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아론아 진짜로 맛있다." 엄마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와 진짜로 축축하다." 동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누나 더 줘." 마지막으로 제가 어른이 되면 요리 학교에 가고 싶어요. 그 곳에서 저처럼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저의 실력을 키우고 싶어요. 기대해 주세요~

소설 쓰기

최준호

여러분! 책 읽는 것 좋아하세요? 저는 책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러면 혹시 글 쓰는 것도 좋아하세요? 저는 글짓기가 취미예요. 특히 공상 과학, 판타지 이야기 쓰는 것을 진짜 좋아해요.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쓰고 있으면 저는 신나는 공상의 세계로 쏙 빠져 들어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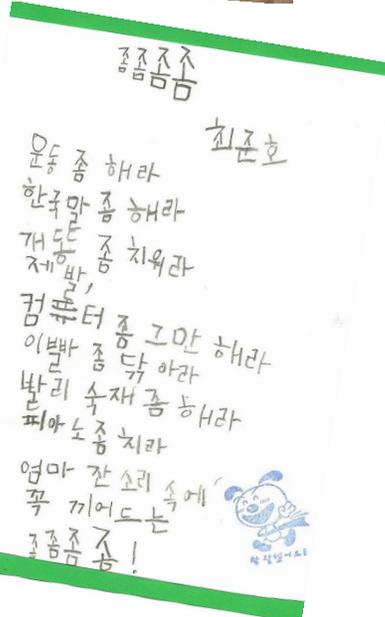
저는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들을 상상하며 글을 씁니다. 주로 우주인 침공, 좀비(Zombie)접수, 미래 모험 이야기를 씁니다. 이야기마다 캐릭터와 배경이 다르지만 보통 용감한 어린 소년과 그의 친구들의 모험 이야기를 씁니다. 이 이야기에는 제 친구들이 나오지만 대부분 제가 주인공이에요.

이야기를 쓰면서 제일 재미있는 것은 마법의 에메랄드나 변신(shape shifting) 같은 신비로운 요소나 순간 이동, 과학 기술 무기 같은 멋진 미래적인 요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공은 뛰어들 줄 아는 수퍼보이가 아니고 공부도 잘 못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보통 소년의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그 소년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그려요.

때로는 두, 세 명의 다른 캐릭터의 시점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두, 세 명의 다른 캐릭터가 보는 시각을 쓰는 것이죠. 읽는 사람이 지루하지 않도록 항상 재미있고 예상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만들려고 노력하지요. 그러다 보면 희망과 우정 같은 이야기도 있지만, 죽음이나 슬픔 같은 안타까운 감정을 만드는 글도 쓰게 돼요.

요즘은 Google Docs 를 사용해서 친구와 함께 글을 쓰기도 해요. 같은 시간에 나는 내 방에서, 내 친구는 친구 집에서 인터넷 연결로 함께 쓰는 거죠. 이렇게 두 사람의 아이디어를 합치면 더 길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쓸 수 있어요! 글을 쓰다 보면 처음엔 신이 나서 열심히 쓰다가도, 멈추고 한참 안 쓸 때도 있지만, 끝을 내고 나면 항상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 나가 발표를 합니다. 친구들은 자기들이 들어간 내 단편 소설들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다음 이야기에는 자기도 넣어 달라고 아우성 치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 한글이 서툴러서 한글 글짓기는 못하지만 열심히 배워서 우리 할머니도 읽을 수 있는 한글 단편 소설을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쓰시고 싶은 시나 이야기를 한번 써 보세요. TV 드라마를 보는 것 보다 더 재미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채정인
05/2016

저는, 여름방학 동안 캠핑을 갔어요. 내가 캠핑을 친구 같이 갔어요, 내가 시애틀에 예살아요, 그런데 내가 차를타서3시간을 탔어요. 레븐워스 (Leavenworth) 근처에 린컨족이 있어요. 우리가 린컨족에 가주있었어요 차를타다, 저아이패드에는있었어요. 저와 저동생같이 게임을 했어요. 영화도봤어요, 우리가 린컨족에갈때, 친구들 다만났어요, 우리 텐트 다만들고 놓았어요, 자전거를 많이타었어요, 한번, 우리 린컨족에있을때, 우리 자전거타서 담보았어요, 린컨족에서 수영도했어요.우리 해변에서 수영을 했어요. 우리 캠핑을 즐겼었어요. 우리가 밤일 때, 머시멜로우를 먹었어요. 머시멜로우가 맛있었어요. 머시멜로우 다먹고, 가서 번났어요, 우리 번에서 번자리를 봤어요, 우리 조금이다가, 텐트 안에서 잤어요. 캠핑을 또가고 싶어요.

이름: 채정인 노티니우 한글학교

위인
The Character

누구 Who	기구
언제 When	1896-1949
어디서 Where	한국/중국 일본감옥에서 도망쳤어요. 중국에서 임시정부 만들었어요 사람들 가르쳤어요.
업적 Achievements	
새로 알게 된 사실 What new things did you learn	안빈이 제일 마지막 조선왕비 를 죽였어요.
내 생각 My thoughts	기구가 한국을 많이 도와 줬어요, 그런데 한국이 두개가 됐어요, 그래서 기구가 안죽었으면, 한국이 하나가 될수 있었어요.

컴퓨터 프로그래머

채정인



지금

지금 도서관에 가자
지금 공원에 가자
지금 음식점 가자
지금,
지금 우리 게임 하자
지금 술래 하자
지금 밭갈자
지금 재밌게 논자

아빠 잔소리속에
걸 끼어든
지금 지금.

요즘 사람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해요. 프로그래밍으로 아이패드, 핸드폰 그리고 전자 제품을 만들어요. 저는 어른이 되면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어요. 프로그래머는 회사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해요. 자바스크립트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하나예요. 자바로 영화, 비디오 게임,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 있어요.

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로봇을 조정할 수 있어요. 우리집에는 로봇 청소기가 있는데 청소를 잘 해요. 미래에는 로봇이 사람처럼 될 수 있어요. 해커라는 나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바꿔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좋은 프로그래머들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더 좋게 만들어요. 저도 편리하고 안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축구와 미식 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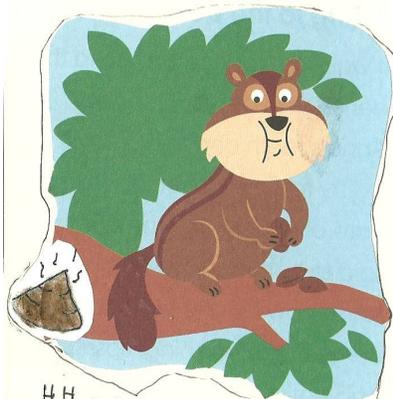
정유진



저는 어른이 되면 축구나 미식 축구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팀웍을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월드컵 축구팀에 들어가서 축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승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아들이 생기면 같이 미식축구와 축구를 하고 싶어요.

운동을 같이 해주는 아빠가 되고 싶어요. 저는 지금 러쉬라는 축구팀에서 축구를 하고 있어요. 러쉬 축구팀에서 미드필더를 맡고 있어요. 저는 공격과 수비를 다 할 수 있는 미드필더가 좋아요. 저는 축구 선수중에는 박지성 선수가 제일 좋아요. 그런데 박지성 선수가 은퇴를 해서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미식 축구 선수중에는 브랑코팀의 페이튼 매님을 좋아합니다.

저는 미식축구나 축구를 하면 하루 종일 달려도 좋아요. 운동을 해서 몸에서 땀이 나는 기분이 좋아요. 운동은 다 좋은 것이지만 그래도 그 중에 최고는 축구랑 미식축구인 것 같아요.



뽀뽀 우우우~

방귀는 웃겨요.

방귀는 웃겨요.
방귀라는 말만 들어도 웃겨요.
방귀는 소리만 들어도 웃겨요.

누나 방귀는 왕 방귀,
유현이 방귀는
다들 방귀,
아빠 방귀는
독한 방귀,
장구 방귀는
부리 부리,
내 방귀는
비밀이에요.



멜라니 마르티네즈 (Melanie Martinez) 콘서트

정인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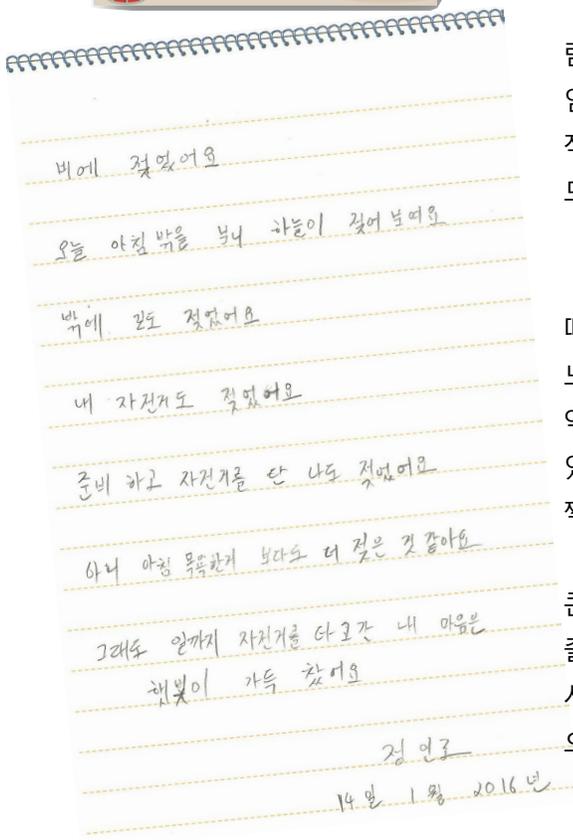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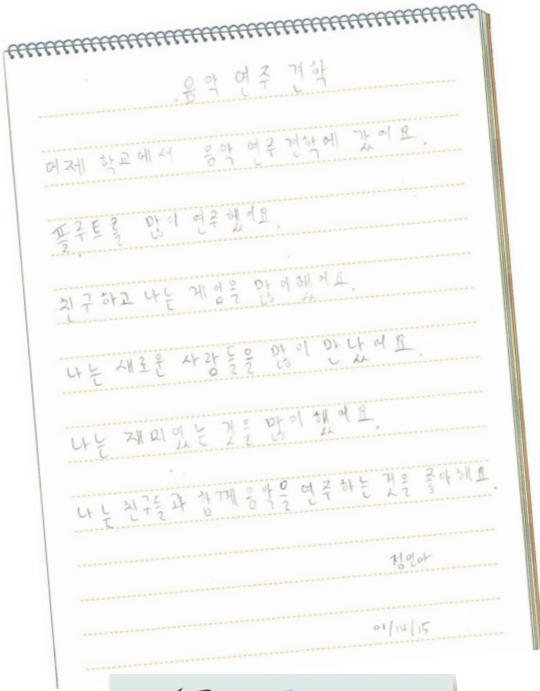
데드풀이라는 영화를 보기 전에 아빠가, 엄마하고 나에게 음악 콘서트 티켓을 사 주셨어요. 콘서트 날은 토요일 저녁 일곱 시였어요. 콘서트 전에 우리는 저녁을 "에타"라는 곳에서 먹었어요. 나는 "바닷게 샐러드"를 먹었는데 아주 맛있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 (Pike Place Market)을 걸어서 지나갔어요. 하지만 너무 늦어서 볼 게 없었어요. 모든 가게가 이미 문을 닫았어요.

삼십 분 전에 쇼박스라는 콘서트하는 곳에 갔지만 벌써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는 줄은 벌써 아주 길어서 골목을 지나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아침 열한시 반부터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어요. 우리는 기다리는 줄 한 가운데 있었어요.

마침내 쇼박스에 들어가니까 안은 아주 어두웠고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쇼박스 안에 물건 파는 테이블에서 엄마가 스웨트 셔츠하고 티셔츠도 사 주셨어요. 콘서트가 시작되고 첫번째 밴드는 알바레즈 왕이라는 그룹이었어요. 밴드는 정말 좋았고 나는 그들의 음악이 좋았어요.

마지막으로 멜라니 마르티네즈가 무대에 올라갔을 때 모두가 비명을 질렀어요. 멜라니 마르티네즈의 첫번째 노래는 Cry baby 그리고 다음 노래는 Doll house였어요. 음악 앨범에서 유명한 노래들을 불렀어요. 나의 처음 콘서트였고 너무 좋은 경험이였어요. 나는 사진하고 비디오를 많이 찍었어요. 콘서트가 많이 재미있었어요.

엄마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아야, 너의 첫번째 콘서트 경험이 아주 좋고 네가 음악, 조명 그리고 모든 것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멜라니 마르티네즈 콘서트에서 엄마가 말씀하신 모든 것을 충분히 즐겼고 이 콘서트는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습니다.



고만
 고만 놀다가 타자
 고만 게임고만 타자
 고만 테레비 좀 보지마라
 고만 더럽게 만들지마라

방귀 끼는 며느리

도유현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 어느 집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방귀를 끼는 며느리였어요. 집을 부서뜨릴 정도의 대단한 방귀를 끼는 며느리였어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집을 나가서 길을 걷고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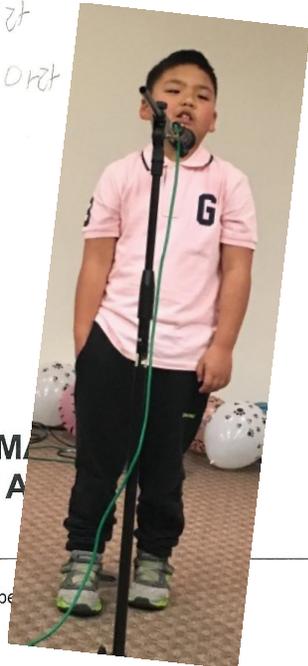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배 나무 아래에서 배를 따려고 했어요. 그런데 배가 너무 높이 달려 있어서 딸수가 없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방귀를 똥웅하고 끼었어요. 그러자 배가 우르르 떨어졌고 사람들이 배를 쉽게 주울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산에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산적들이 나타났어요. 그때 며느리가 방귀를 똥웅 끼는 바람에 산적들이 모두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며느리는 임금님에게 상도 받고 시아버지와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오래 오래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책이 재미있었어요. 왜냐하면 방귀 끼는 것이 너무 웃겼어요. 그리고 방귀를 똥 때마다 찡그린 며느리 얼굴이 너무 웃겼어요. 여러분도 한 번 읽어 보세요~.



STORY SUMMARY WRITE ABOUT A



SETTING

Where did this story take place? Name and describe what happened.

동굴
 동굴

CHARACTERS

Who were the characters? Write their names and write brief descriptions of each one.

아리바바, 40 도둑들

CONFLICT

What was the action in the story? What gave the story a beginning, middle, and end?

40도둑들이 금은을 훔쳤어요.
 아리바바가 동굴에서
 열여덟 함께! 그래서 동굴이 열
 흥친동이 있었어요.

CONCLUSION

How did the story end? Was it funny, sad, or something else?

행복하게 끝났어요.

세종대왕

도형탁

안녕하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 남북통일을 열망한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님,
물론 미국에도 흑인 인권 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노예 제도를 해방한 아
브라함 링컨처럼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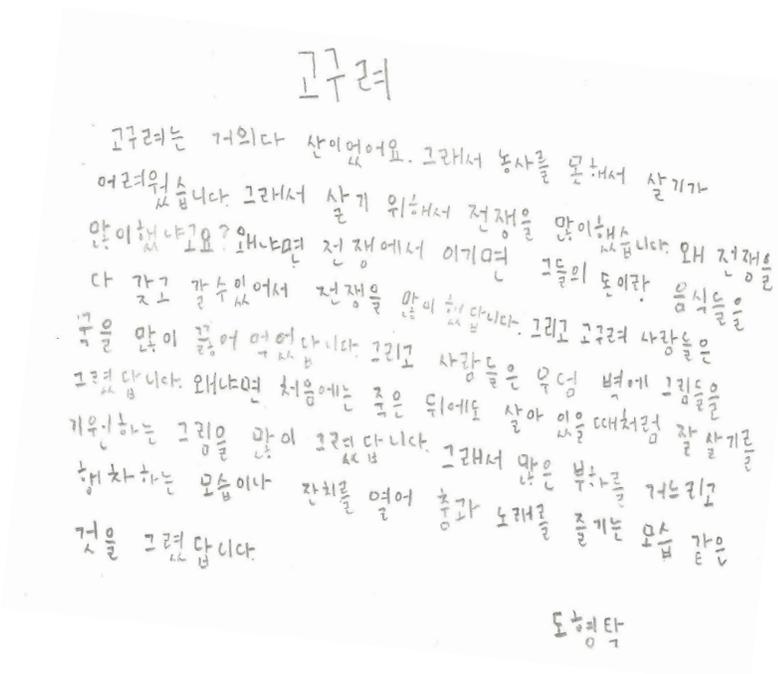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 한글을 만들어 주신 세종대왕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세종대왕은 1397년 4월 10일 태어났습니다. 세종대왕은 책을 무척 좋아했어요.
책을 너무 좋아해서 책을 잡으면 책이 끝날 때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책 읽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세종대왕은 왕이 된 다음에 나라가 번영하려면 인재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
어요. 그래서 집현전을 만들었어요. 집현전은 '지혜의 집'이라는 뜻으로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에요. 어느 날, 신숙주라는 학자가 밤 늦게까지 책을 읽다가 새벽
에 잠이 들었어요. 세종대왕은 집현전에 들어서 신하인 신숙주에게 왕의 겉옷을
벗어서 덮어주었습니다. 다음날 신숙주와 다른 학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세종대왕의 마음에 감동을 받
아서 학문 연구에 더 노력을 했습니다.



세종대왕은 1443년에 닿소리 17자와 홀소리 11자를 합한 28자의 우리 글을 만드는데 성공했어요. 세종
대왕은 이것을 훈민정음이라고 이름지었어요. 훈민정음이란 뜻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예요. 한
자가 너무 어려워서 배울 생각조차
못했던 백성들은, 누구나 쉽게 한글을
배울 수 있게 되었어요. 과학적인 글
자인 한글은 백성들의 삶을 편하게
해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종대왕 덕분에 한
글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
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인 저도 그
혜택으로 두 가지 언어, 한글과 영어
모두를 잘 합니다. 저는 백성을 사랑
한 훌륭한 임금,
세종대왕을 가장
존경합니다. 감사
합니다.



내 친구 Ayanna

이성은

여러분은 "Best Friend" 라는 단어를 들으면 누가 떠오르나요? 저는 제 친한 친구 아이아나가 생각이 나요. Ayanna는 원숭이처럼 장난이 많아서 너무 웃겨요. Ayanna는 유머가 많고 마음도 착해요. 저는 잘 웃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린 친한 친구가 된 거예요. Ayanna는 재미있는 친구만 아니라 똑똑한 친구예요. Ayanna는 학교에서 G & T 프로그램을 다녀요. G & T는 똑똑한 애들이 다니는 학교 프로그램이에요. 이 곳에서는 더 어려운 것을 배워요. 저는 수학을 진짜 못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 Ayanna를 꼭 불러요. 그럼 Ayanna는 언제든지 꼭 도와줘요. 저는 제 친구들 하고 가끔 다투는데 사실은 Ayanna하고 제일 많이 다투요. 왜지는 몰라요. 아마도 우리가 같은 점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싸우고 나서 우리는 꼭 다시 화해를 해요.



내 친구 Ayanna는 어쩔 때는 진짜 미워요. 엄마가 사 주신 것을 꼭 보여주고 사랑해요. 저한테만 못 만지게 하고 다른 친구들한테는 보여주고 만지게 하는데... 그래서 어느날 Ayanna한테 물어 봤어요. "왜 나만 못 만지게 해? 나한테 빠친 거 있어?" 그렇게 물어보자 Ayanna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너는 아빠가 있잖아! 나는 아빠가 없고 누군지도 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Ayanna를 꼭 안아줬어요. Ayanna 엄마는 진짜 좋은 분인데 한국말을 못하세요. 그래서 Ayanna도 한국말을 못해요. 저는 동생이 둘이나 있는데 Ayanna는 동생도 없고, 언니, 오빠도 없어요. Ayanna가 아주 어렸을 때, 엄마와 아빠가 이혼을 하셨대요. 그래서 Ayanna는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요. 아빠가 없어서 학교에서 애들이 놀리기도 해요.

작년 여름에 제가 시애틀로 이사를 와서 이제 우리는 떨어져 있어요. 지금 저는 시애틀에 살고 Ayanna는 뉴저지에 살아요. Ayanna는 너무 멀리 있어서 매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꼭 전화를 하고 편지를 써요. 전화 할 때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시애틀하고 뉴저지는 시차가 있거든요. 하지만 Ayanna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괜찮아요. 저는 "Best Friend"라는 단어를 들을 때면 Ayanna가 생각이 나요. 감사합니다.

백제 06/17/2016 이성은

"백제는 뭐냐?" 사람들이 물어왔어요. "나라야, 고구려 와 신라 처럼 나라지." 저는 대답은 했지만, "와, 성은이, 너 백제 에 대해서 많이 안다." 사람들이 멋지다고 했어요. 사실은 백제 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안 많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백제를 왜 잃어버린 왕국이라고 하나요?" 책을 주셨을 때, 저는 신났어요, 책은 재밌었어요, 백제는 기원 660년에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떻게지?" 저는 그 생각을 했지요. 답은 책에 써있었어요. 백제는 볼 때 문에 다 사라졌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시 찾았다는게 기뻐했어요.

고구려, 신라도 멋진데, 저한테는 백제가 가장 좋습니다.

고구려

저는 고구려가 고구마 처럼 음식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고구려에 대해서 캐뉼뒤에 고구려 와 고구마는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왜 백화를 그렸나요?) 책을 볼 때, 고구려 사람들이 있었습다. 저한테는 무섭게 생겼습다. "쿠시쿠시한 못신을 신었던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라는 글은 읽어보니까 고구려 군인 민족들 약게 되었습니다. 고구려 군인은 갑옷과 투구로 온 몸을 가렸습다. 신받은 특이한 못신을 신었어요.

저는 고구려가 신기하고 멋진 나라 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은

내 친구 카밀라

정유나

여러분은 장애인 친구들이 있나요?

우리 학교에는 장애인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장애인에게 관심을 갖게 된 건 예전에 읽은 책 때문이에요. “원더”라는 책인데, 그 책은 어거스트라는 장애인 남자애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거스트는 얼굴이 특이하게 생겨서 왕따를 많이 당했어요. 사람들이 괴물같이 생겼다고 말하고 만약에 자기들이 어거스트였다면 죽을 거라고도 했어요. 또, 어거스트가 다가가면 소리 지르면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어거스트는 많이 속상했어요.

한 해가 끝나갈 무렵, 여전히 어떤 애들은 어거스트를 싫어 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거스트를 생김새로 판단하지 않고 어거스트의 착한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들어 갈 때는 아이들이 다 어거스트를 좋아하게 돼요.

저는 3-4학년 때 학교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친구를 알게 됐어요. 우리 학교에 장애인 학생들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1-2학년 때는 특별한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3-4학년이 된 후 저희 반에 있는 학생들이 다른 반에 있는 장애인 친구들이랑 같이 게임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게임하러 갔을 때, 긴장되고 조금 무서웠어요. 제가 어색해서 다가가기 망설이는 동안 한 친구가 먼저 다가왔어요. 그 애 이름은 카밀라였어요. 저는 카밀라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제가 카밀라를 즐겁게 만들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한 게 틀렸어요. 카밀라가 저를 즐겁게 만들어줬어요.

카밀라를 다시 만났을 때 카밀라에 대해 더 잘 알게 됐어요. 그리고 카밀라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됐어요. 저는 카밀라랑 같이 있으면서 장애인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장애인들이 무서웠고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이제는 학교에서 장애인 친구들과 게임을 하면서 놀아요. 카밀라는 외모가 보통 아이들과 조금 달라서 그렇지 공부도 잘하고 다른 것도 잘해요. 카밀라랑 놀면서 카밀라도 저랑 똑같다고 깨달았어요.

아직도 우리 반에 있는 어떤 애들은 카밀라의 마음을 이해도 못 하고 외모로만 판단해서 카밀라를 싫어해요. 밖에서 놀 때 카밀라가 다가오면 소리 지르면서 피해요. 장애인들도 사람이고 저랑 똑같이 심장이 뛰어요. 저는 제 친구 카밀라를 통해 사람은 외모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부모

노지영

저는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그리고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저는 미국에 사는 다른 아이들과 좀 다르게 자랐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애들 몇 명은 저랑 한 가지는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아침에 김치 먹어서 껌 씹고 학교 가는 것, 현대나 기아 차를 볼 때 마음이 미묘하게 따뜻해지는 것, 누군가가 "don't go"라고 말하면 "똥꼬"로 착각하는 것...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우린 다른 아이들과 달리 더 특별한 삶을 삽니다.

저는 제가 한국사람인게 너무나도 좋고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한국인으로 사는게 쉽지 않습니다. 뿌리가 다르면 나무도 다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자랐던 환경부터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까지, 다른 애들이랑 너무나도 달라서 어디가도 다른 애들과 공감을 잘 못합니다. 최근에 저의 코리안 아메리칸 반 친구가 팔빙수를 모른다고 했을때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우린 이젠 외로움이 익숙합니다.



하지만 저의 외로움보다 저의 슬픔이 더 큼니다. 대부분 코리안아메리칸 아이들이 한국의 역사, 우리의 조상들의 흘린 피와 눈물을 모른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나도 슬픕니다. 마치 한 부모만 아는 것처럼.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 나라를 지키려고 얼마나 힘들게 버텨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저의 외로움, 저의 슬픔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미국 땅에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의 외로움과 슬픔은 저의 한국에 대한 사랑, 애국심, 그리고 자부심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This is America. Why would you bother learning Korean?" "여기는 미국인데 왜 한국어를 배워?" 왜냐고요? 우린 한국인이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디에서 태어나더라도 어디에서 자라더라도 상관없이 한국인이니깐요. 엄마와 아빠 중에 한 명을 못 고르는 것 처럼 저는 미국과 한국 둘 중에 한 나라만 고를 수 없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제가 15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포기하고 싶어도 이 미국 땅에서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꿈은 모든 코리안 아메리칸이 자신의 뿌리를 알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아니, 우리의 잃어버린 부모, 대한민국을 찾아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바위 얼굴

장송이

여러분, “큰 바위 얼굴”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큰 바위 얼굴”은 한 소년, 어네스트의 “위대한 인물 찾기” 이야기예요. 주인공인 어네스트는 어린 시절부터 얼굴 모양의 바위산을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언젠가 저 바위산과 닮은 얼굴의 위대한 인물이 등장할 것이다’는 전설을 듣고, 큰 바위 얼굴과 닮은 인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어네스트가 사는 마을을 지나갔어요. 돈이 많은 재력가, 용감한 장군, 그리고 당당하고 성공한 정치가도 있었지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 바위의 주인공은 바로 어네스트였어요. 왜냐고요? 어네스트는 돈도 많이 없었고, 용감하지도 않고, 당당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어네스트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진정한 리더였어요.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무엇보다도 진정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베풀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네스트는 결국 큰 바위 얼굴이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아요? 저도 언젠간 어네스트처럼 꿈을 이루고 싶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정말로 많았어요. 어른들이 맨날 꿈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항상 “요리사! 선생님! 미국의 첫 여자 대통령! 의사!” 라고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점점 커 갈수록 저는 제 꿈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얼마 전에 교회에서 노숙자를 도와주는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시애틀 다운타운에 있는 노숙자들한테 음식을 주고, 옷도 나누어 주고, 같이 얘기도 하고, 기도도 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니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노숙자들은 보험이 없어 병원도 가지 못하고 아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병이 없어진다면 어떨까? 아프지 않는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다가 신약 개발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칠 수 없는 병들을 제가 직접 약을 개발해서 치료해 주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는 고칠 수 있는 병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많은 병들을 제가 다 고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덜 아픈 세상,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병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거기서가 끝이 아닙니다. 저는 제 꿈을 널리 널리 펼치고 싶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방문해서 필요한 것들도 기부해주고 싶습니다. 또 이 세상의 불행한 사람들에게 평안함과 행복을 주고 싶고 그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어네스트처럼 진정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고 싶습니다. 지금은 제가 좀 어리고 약해 보이지만 아닙니다. 제가 아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thing is impossible unless you make it impossible” 이 세상에는 불가능이라는게 없습니다. 자신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꿈을 향해 매일매일 달려가고 있습니다.





교내 한국어 말하기 발표회
삼월 십이일

대외 수상 I



주관: 재미한국학교 서북미지역협의회
후원: 시애틀총영사관

제20회 한국어 학력경시대회

일시: 4월 30일 (토)

최우수상 (노지영)

우수상 (도유현,정유진)

장려상 (장송이,정유나,이성은)



제20회 한국어 말하기 축제

일시: 5월 24일 (토)

대상 (노지영)



제24회 학예경연제

일시: 6월 4일 (토)

장원: 글짓기 (장송이)

대외 수상 II

제1회 정주영 에세이 공모전

주관: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주최: 정주영기념미주재단
대상 (노지영)



제2회 정주영 에세이 공모전

주관: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주최: 정주영기념미주재단
장려상 (장송이)

제3회 "나의 뿌리 찾기" 에세이 공모전

공동주최: 뉴욕중앙일보 & 뿌리 교육재단
2등 (노지영) 장려상 (장송이)



제3회 SeattleN 코리아 글짓기 대회

주관: SeattleN
주최: 시애틀총영사관
대상 (노지영)



책 읽기 (생각을 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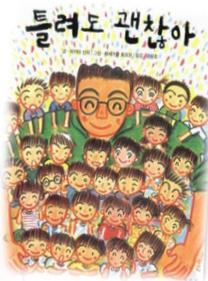
책 읽기 - 생각을 열다, 왜 책 읽기가 중요하고 (남)에게서 어떤 도움을 주는지 이야기 하고, 설명을 해준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 있는 선생님은 아이들은 실험을 해왔다. 책을 매일 읽어 준 아이들의 시험 결과와 책을 안 읽어 준 아이들의 시험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책을 읽어 준 아이들의 시험 결과가 훨씬 더 좋았다. 왜냐하면 책 읽기는 극어 시간에만 중언게 아니라, 독서, 언어, 쓰기, 그리고 수학까지, 다른 과목에서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도 책 읽는 습관을 고쳐 버리고 한다. 한 자판의 책을 읽지 않고, 좀 더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어 보면서, 내 세상에 대한 지식이 더 넓히고 싶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책 읽는 시간은 늘리는 것이다. 책 읽는 시간을 늘리고, 그 시간에 책이 더 많이 읽고 싶다.

EBS

[책 읽기 — 생각을 열다]를 시청한 후



책 읽기 (생각을 열다)

노지영
1/6

'책 읽기'라는 동영상은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하는 동영상입니다. 아이들은 책을 더 많이 읽을수록 더 발전합니다. 오히려 책을 읽으면 읽는 실력 뿐만 아니라 글을 쓰는 실력도 늘립니다. 또, 학교에서 시험을 할 때 책을 더 읽은 아이들이 문제를 더 이해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한 읽는게 아니라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아이를 위해 책을 읽어주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기가 더 어질수록 좋다고 합니다. 저는 책을 어릴 때부터 자주 읽었습니다. 밥 먹을 때, 차를 탄 때, 자기 전 때... 저는 항상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많이 읽은게 지금 까지도 저를 많이 도와줍니다. 책을 읽으면 더 많은 단어를 알고, 글도 더 잘 쓰고 상상도 더 넓어집니다. 제 친구들과는 볼 때 책을 읽는 친구들과 책을 안 읽는 친구들의 차이가 아주 티가 납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본 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어른이 되어서 아이가 있을 때 그 아이한테 책을 많이 읽어주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제가 책을 더 많이 읽고 싶습니다. 요즘은 바빠서 책을 자주는 못 하지만 주말때 드라마를 보는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에 책을 읽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좋은 책들을 많이 쓰고 싶습니다. 이 동영상으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책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래서 저도 사람들을 발전시켜주는 책들을 쓰고 싶습니다.

제2회 정주영 에세이 공모전 장려상 수상작

정주영 회장님처럼

장송이



“모든 일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해낼 수가 있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고는 자신의 발전을 가로막는 거대한 닫힌 철문이며, 그 철문 안에 스스로 가둔 사람에게 발전이란 있을 수 없다.” 저는 배구 시합과 테니스 시합을 통해서 정주영 회장님의 이 말씀이 정말 맘에 와 닿았습니다.

저는 활발하고 사교적이고 외향적인 사람이지만 장애물을 만나면 저도 모르게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쉽게 합니다. 작년 가을에 저는 학교 배구팀에서 배구를 했습니다. 배구는 내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정신력을 가지면 그 시합에서 이기게 되고,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정신력을 가지면 그 시합에서 지게 되는 것 같아요. 게임 도중에 날아오는 공을 못 잡고 땅에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제가 실수를 해서 상대팀이 점수를 얻게 되면, 저는 우울해지고, 우리 팀이 이제 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저희 팀이 이겼습니다.

이번 봄에는 학교 테니스팀에서 경기를 했습니다. 테니스 경기를 하면서 저는 이길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팀이 너무 못했기 때문이에요. 게임이 시작되고 첫 번째 세트가 시작 되었어요. 한 세트는 여섯 게임이 있는데 첫 번째 게임은 우리 팀이 쉽게 40대15로 이겼고,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 게임까지도 우리 팀이 이기게 되었어요. 6대0으로 첫 번째 세트를 이긴 저는 자신만만한 생각으로 ‘아, 다음 게임은 우리가 100% 이기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세트가 시작되자, 상대팀이 게임을 연속으로 이겼어요. 그리고 우리팀이 1대5로 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게임이 시작되었어요. 이 게임에서 상대팀이 이기면, 동점(Tie Breaker)이 되지만 우리가 이기면 2대0으로 전체의 게임을 이기게 돼요. 저는 포기하는 마음으로 서브 라인에 서게 되었어요. ‘이건 못 이겨... 점수 차이가 벌써 너무 벌어졌어...’

하지만 우리가 여섯 번째 게임을 이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도, 또 그 다음도, 또 그 다음 게임에서도 우리가 상대팀을 이기게 되었어요. 어느 덧 점수는 5대5 동점이 되었어요. 모두가 저랑 제 파트너를 보고 있었어요. 마지막 게임에서 제가 서브를 하고 게임이 시작되었어요. 저랑 제 파트너는 그 어느 때 보다는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결승의 1점 (매치 포인트)에서 9대6으로 제 파트너가 서브를 하고 상대방이 리턴을 하고 제가 발리 (Volley-공이 땅에 닿기 전에 되받아치기)를 하면서 게임을 이겼어요. 저는 이 경기를 이기게 되면서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북선이요. 당신네 영국의 조선 역사는 1800년대부터이지만 우리는 1500년대에 이런 철갑선을 만들어 바다에 띄웠소. 그 철갑선으로 일본의 수 많은 적들을 다 물리쳤소. 그만큼 우리에게도 충분한 잠재력이 있소.”

저는 정주영 회장님의 위풍당당한 모습과 말이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저런 말과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정주영 선생님은 진짜 멋진 분이다.” 그리고 또 정주영 회장님의 나라에 대한 애국심도 느껴졌어요. 저 또한, 롱바툼 회장처럼 정주영 선생님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정주영 선생님의 또다른 꿈은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정주영 선생님은 미국의 자동차 회사와 손을 잡아 6개월 만에 “코티나”라는 차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코티나는 생각보다 잘 팔리지 않았어요. 그러자 정주영 선생님은 자신의 힘으로 국산 자동차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미국 자동차 회사와 결별을 했어요. 2년 후, 정주영 선생님이 그토록 꿈꾸던 첫 국산 차, “포니”가 만들어졌어요.

정주영 선생님은 삶을 살아가면서 한국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애도 쓰셨지만, 물론 봉사도 많이 하셨어요. 1977년에 설립한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사회의 불우한 이웃들을 돕기 위한 재단이에요. 정주영 선생님은 병원이 없어 치료도 못 받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 현대 의학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고 가난하여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도 보태 주었어요. 정주영 선생님은 바쁜 시간중에서도 이웃 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주려고 했어요 그 따뜻한 마음이 정말로 존경스러워요.

저는 제가 바쁘고 힘들면, 다른 사람들을 봐주고 신경을 써 줄 시간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었어요. 저는 오히려 저를 챙기는데 더 바빴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주영 선생님은 바쁜 걸 떠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바쁜 정주영 회장님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정주영 회장님의 업적들 중에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은 것은 금강산 관광이었어요. 정주영 회장이 펼친 ‘금강산 관광’은 6.25 전쟁때문에 남한으로 올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 고향이 그리운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고향을 다시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정주영 선생님이 너무 많은 일들을 하셔서 여기에 모두 쓸 수는 없지만 꿈을 갖고 최선을 다했고 또 북한 땅을 밟은 사람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더 나아가서 금강산 관광이 끝나고도 정주영 선생님은 남한과 북한이 통일 될 수 있도록 애를 쓰셨습니다.

이웃까지 도와 주는 그 마음과 정신을 닮고 싶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주영 회장님의 마음과 정신을 닮고 살아간다면 모든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제1회 정주영 에세이 공모전 대상 수상작

노력으로 하늘까지

노지영



제가 어렸을 때 차를 타고 가면 부모님이 현대 차 브랜드를 가리키며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저 앞차, ‘현대’라고 써져 있지? 그 차 한국 차야.” 저는 그 때부터 차를 탈 때마다 항상 현대 차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현대 차를 보게 되면 제 마음이 미묘하게 따뜻해집니다.

저는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법적으로 미국인이지만 마음은 한국인입니다. 예를 들면, 월드컵이나 올림픽을 볼 때마다 전 항상 한국 팀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링컨이나 록펠러도 존경하지만 김구 선생님이나 정주영 회장님을 더 존경합니다. 제가 정주영 회장님을 한 단어로 설명을 해야 한다면 저는 ‘노력’이란 단어를 선택을 할 겁니다. 정주영 회장님한테는 기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노력을 해서 기적도 저절로 따라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은 마치 소원처럼 자신의 힘으로는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노력으로 현대를 설립했고, 노력으로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었고, 그리고 노력으로 우리의 한국을 빛내주는 훌륭한 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위인들은 다르게 태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냥 노력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학교에서 IB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 커리큘럼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항상 제가 공부를 잘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를 그냥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공부도 노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일생의 소망은 바다만큼 농지를 소유하는 것이라고 하신 아버님의 말씀이 나의 잠재의식 속에 남아 그분이 이루지 못한 소망을 이뤄드리고 싶어 바다를 막아 농토를 만들었다.”

제가 코리안 아메리칸이 된 이유는 저의 부모님의 무욕 때문입니다. 제 부모님은 한국에서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저와 제 언니의 미래를 위해 미국으로 왔습니다. 제 부모님은 그들의 성공의 사다리를 온 인생 동안 만들어 왔지만 저를 위해 그 사다리를 못 올라갔습니다. 그 대신, 제 부모님은 제가 제 사다리를 잘 올라 갈 수 있게 좋은 재료들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제 사다리를 잘 만들고 꼭 올라가서 하늘에 도달해서 별들을 따라 합니다. 따라서 저도 성공을 한 뒤 저의 부모님의 못 이룬 소망들을 정주영 회장님처럼 멋있게 다 이뤄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으면 저도 정주영 회장님처럼 노력을 엄청나게 해야 할 겁니다.

제 부모님은 저를 위해 사다리를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을 주었지만 정주영 회장님에게는 사다리를 만들 재료도 거의 없었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에게 사다리를 만들 수 있는 재료는 딱 두가지만 있었습니다: 노력과 태도. 그리고 이 두가지의 재료로 정주영 회장님은 대부분 사람들의 사다리 보다 더 튼튼하고 멋진 사다리를 만들고 올라갔습니다.

“Reach for the moon. Even if you miss, you’ll land among the stars.” 달에 도달하도록 노력하라. 너가 혹시 놓지더라도 너는 별 가운데 떨어질 것이다. 저는 이 말이 정주영 회장님이랑 너무나 잘 맞는 거 같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항상 도전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항상 달에 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시련도 있었죠. 하지만 시련이 있어도 정주영 회장님은 항상 별 가운데로 떨어진 것처럼 그 시련을 통해 발전하셨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처음부터 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님은 이것을 노력과 태도로 극복하였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어떤 일에 실수를 할 때마다 그 실수로 인해 그 일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정주영 회장님은 그 일을 완벽하게 할 수 있게 수 많은 밤을 새웠고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천천히 그들이 하는 것을 보며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주영 회장님은 그 일에 최고가 되었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나쁜 운과 좋은 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좋은 운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나쁜 운이 들어올 틈이 없다. 운이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개 게으르다.” 저도 살면서 불공평한 일들이 많았었고 미래에서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정주영 회장님의 말씀처럼 나쁜 운 때문이라고 핑계를 하지 않을 겁니다. 불공평한 상황들이 저를 못 건들게 저는 엄청 노력을 해서 제가 뭐를 하든 뛰어난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나쁜 운이 들어올 틈이 없으니까요.

정주영 회장님의 참 대단한 특징은 확신과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할 때 성공과 실패를 둘 다 생각을 하며 합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님은 성공만 생각을 하며 모든 것들을 했습니다. ‘불가능이란 말은 없다.’ 저는 이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을 한 번도 진짜로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님을 통해 저는 이제 그 말을 이해하며 믿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항상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이룩한 일들이 한 때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저도 압니다. 저도 정주영 회장님처럼 성공만 생각하며 살면 저도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형편이 정주영 회장님의 형편보다 훨씬 낫습니다. 제가 이것을 깨달았을때 제 미래가 되게 밝아 보여졌습니다.

제가 정주영 회장님처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게으름이 제 인생에 아직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정주영 회장님을 통해 영감을 받았습니다.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제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건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제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제 인생은 하늘과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옛날에 저의 할아버지가 정주영 회장님의 건설 현장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제 할아버지는 정주영 회장님의 뛰어난 아이디어에 많이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제 할아버지랑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초심을 한번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바다를 막아 땅을 만들어서 농사를 할 수 있는 땅을 넓혔고 쌀의 수량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배고픈 가난한 사람들의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어른이 되고 성공했을 때도 자신의 어린 시절의 가난과 배고픔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200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정주영 회장님은 2001년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짧은 1년 동안 저는 정주영 회장님이랑 이 세상에 같이 공존했던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님이 이 세상에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현대 회사가 없었겠죠. 그럼 현대 차들도 없었겠죠. 하지만 정주영 회장님이 이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사는 어떤 코리안 아메리칸 소녀가 현대 차를 볼 때마다 마음이 미묘하게 따뜻해집니다.



(사) 한국문예원언어콘텐츠연구원
Korea Moonyewon Language Contents Institute

시애틀 느티나무 한글학교 도서기증

2016년 3월 30일 / 카테고리: 국내외 작은 도서관 지원 / 작성자: kmici

새책이 옵트는 3월 6일.

한국문예원언어콘텐츠연구원에서는 회원분들의 회비를 바탕으로 시애틀에 위치한 '느티나무 한글학교'에 도서 100여권을 기증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해 한글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더욱 즐겁고 재미있게 책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회원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더욱 많은 아이들에게 책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교재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면 학생들의 언어 학습 능력이 향상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차원 높은 한글 교육으로 이끌어 준 것은 재미있는 한국어 그림책과 한국어 동화책이었습니다. 한국인의 뿌리임을 잊지 않도록 한국어로 된 책들을 읽어주며 또 학생들로 하여금 읽게 하며 더 넓게 더 깊게 한국인의 얼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니다.

이 모든 성장과 성숙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것입니다. 재외동포 후세들에게 끊임없는 애정과 사랑과 수고의 손길을 내미시는 문예원 오길주 원장님과 (사) 한국문예원언어콘텐츠연구원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느티나무 한글학교 교사, 학부모 그리고 학생 드림

한글학교소개

입학안내

한글수업안내

선생님들

학교공지사항

자료실

갤러리

회원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아이디저장하기

공지사항

- 1학기 등록 (2016.9~2017.1) Fall se..
- 6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여름방학..
- 2016 한국어 말하기 발표회 / 2016 K..
- 2016 느티나무 한글학교 2학기 수업 ..
- World Language Assessments (Edmond..

학사 일정표

2016.8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느티나무 갤러리

사진갤러리



*숙제와 출석은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숙제는 매주 한글학교 홈페이지의 <학교공지사항>에 업데이트됩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